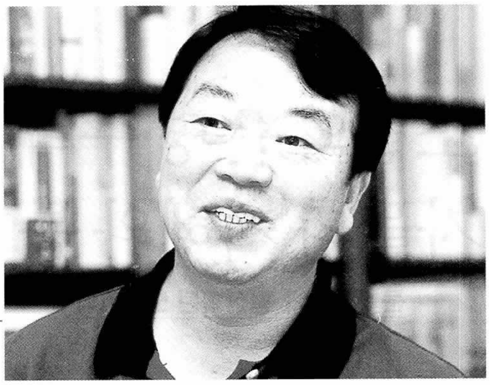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로잡겠다"

〈실버북〉 시리즈 펴내는 동인출판사 이완재 대표



실버산업과 엔젤산업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다는 고소득 산업이다. 엔젤산업이 낮아진 출산율에 힘입었다면, 실버산업은 넓고 두터워진 노년층에 기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평균수명이 느는 것에 따라 노년층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게 됐다. 출판계에서도 노년에 집중해 다양한 내용을 선보이는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동인출판사의 이완재 대표(46)는 〈실버북〉 시리즈 등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분야 책들을 꾸준히 펴내고 있다.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노년층을 위한 실용서

"'늙음'은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생산주체의 역할을 다한 수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용가치가 없고 수동적이며 정체된, 혹은 퇴행적이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르신'은 존경과 품위를 내포한 문화적 용어입니다. 세월에 더해 존경받을 소양, 지식, 습관 등을 지닌 이들을 지칭합니다."

그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노인문제를 탐구하는 책을 펴낸 것은 노인들이 모두 어르신의 반열에 오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가 노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평범한 노년층을 위한 책이 거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고, 사려 깊게 준비하지 않은 노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깨달음도 큰 자극이 됐다.

"자연스레 노인들의 단점과 습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생각이 바뀌는 등 사람과 사회가 달라지는데도, 좀처럼 변화를 모르는 노인들의 아집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실버북〉 시리즈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실버북〉 시리즈는 분야별 전문 지식과 상식을 담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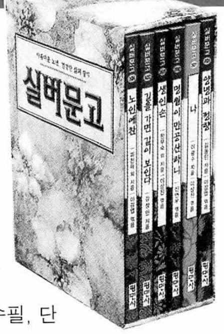
〈실버북〉 시리즈의 첫 책은 1995년에 선보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습관》(타쿠마 타케도시, 서혜경)이다. 〈실버북〉 시리즈는 '자녀의 결혼 생활을 간섭하지 말라'는 등 생활 속의 실천사항을 소개한 첫 책부터 《내일을 위한 정년 길라잡이》(김미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인 바로 알기》(한국노인의 전화), 《실버시대의 실버사업》(강주지), 《잊을 수 없는 사람들》(한국사회복지관협회)까지 모두 5권이다. 이씨는 이 시리즈를 앞으로 15~20권 더 출간할 계획이다.

노인문제 전문잡지 《늘 푸른 삶》 내년 복간 예정

그가 노년층에 품은 애정은 단행본뿐만 아니라 잡지에까지 닿아 있다. 《늘 푸른 삶》은 그가 "사회적 연대 세력"이라는 자각으로 펴낸 격월간지다. 이 책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탐구해 상당한 반향과 지지를 얻었다. 2001년 1월호를 끝으로 휴간됐는데, 2003년 상반기에 월간지로 복간된다. — 차정신 기자

장년 · 노년층 위한 문학서

평민사 〈실버문고〉 시리즈



평민사의 〈실버문고〉는 2001년에 1차분 6권이 출간됐다. 이 시리즈는 우리 문학을 전공하는 이강엽씨와 이상진씨 부부가 기획했고, 수필, 단편 · 장편소설, 시조 등 장년층과 노년층에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책들은 각각 2백쪽 안팎으로, 글자 크기를 일반 단행본보다 더 크게 하고 행간을 넓혀 읽는 부담을 줄였다. 또 어버이날 등을 겨냥해 선물용 묶음도 선보이는 등 기획과 출간 양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시리즈다.

이 책들은 노년의 감회, 웃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바른 처신 등을 담담히 써 내려간 《노인예찬》(피천득 외, 이강엽 엮음), 인생의 지혜와 여유 있는 사고 전환을 이야기하는 《길을 가면 길이 보인다》(강창민), 한무숙 · 이효석 등의 단편소설을 모은 《생인손》(한무숙 외, 이상진 엮음), 한국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선인들의 시조집 《명월이 만공산 하니》(신연우 엮음), 춘원의 자전소설 《나》(이광수, 이상진 엮음), 역사적 사실을 뼈대로 새롭게 창작한 사담집 《양녕과 정향》(김동인, 이강엽 엮음)이 그 면면이다.

평민사 편집부 황현옥 과장은 "〈실버문고〉는 60대 이상의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크게 키운 활자는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이상 독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버문고〉는 1차분으로 문학을 펴냈고,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건강 등을 주제로 다음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다.